

Bangladesh

-Raonatti-



10월 월간보고

방글리아

-구정선, 김나드, 이창현, 한지연, 홍수연-

Contents.



- 001. 월간 일정
 - 002. Host Family 소개
-
- 003. 주요 활동 및 활동 나눔
 - 004. 개인별 월간 소감
-



1. 월간일정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sa trip(3~7) 			
7	8	9	10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vious activity review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rpara •한국어교육 •End poverty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End poverty 준비 •텃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d poverty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YMCA basketball world challenge
14	15	16	17	18	1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End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far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인팅 •End poverty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d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nual General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일
21	22	23	24	25	•2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hapara •텃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스테이 집으로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코트 정비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rgapuza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ternative tourism 을 위한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liday for Eid Ul Az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liday for Eid Ul Azha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Holiday for Eid Ul Az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ternative Tourism 문서 작성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ternative Tourism 문서 작성 •텃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코트 정비 •텃밭 가꾸기 			



2. Host Family 소개

Host Family 소개 - 10/22



Host Family 소개 - 지도



Host Family 소개

구정선



김나드



이창현



한지연



홍수연





3. 주요활동 소개 및 나눔

주요 활동 소개

- End Poverty Campaign-



1. 준비과정
 - 비리시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음
 - 회의를 통해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한 후에 판넬 제작
2. 목적
 - 방글라데시/전세계의 교육빈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공유하고 그로 통해 빈곤 퇴치의 밑거름을 마련 하도록 한다.
3. 진행과정
 - 오전 – Mohilla College – 여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
 - 오후 – Uttural Bazar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

주요 활동 소개

- End Poverty Campaign-

1. Mohila College : durgapur에 위치한 여학교 (이곳의 college는 한국의 고등학교 개념이다.)

- Biplop Secretary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라온아디와 End Poverty Campaign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 '빈곤'에 대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의견 모으기.
- 방글라데시의 교육 현황 및 교육의 중요성 알리기.
- 빈곤 퇴치 구호 영상 촬영
- 학교라는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활발한 환경에서 캠페인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 우리가 계획한 루트대로 캠페인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요 활동 소개

- End Poverty Campaign-

2. uttral bazar : Birisiri의 중심에 있는 시장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중심지.

- 과정 : 지도와 그림 자료 등 언어적 소통의 문제점을 축소 시킬 수 있는 자료 중심의 시각 자료 게시 및 빈곤에 대한 생각 모으기, 영상 모으기

- 시장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College에서 할 때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우리의 캠페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다. 비록 영어로 된 판넬들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적고, 벵골어로 번역된 판넬 역시 관심은 적었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자료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빈곤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곳의 주민들에게 '빈곤'이라는 개념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하는 일에는 성공했다.



주요 활동 나눔

- End Poverty Campaign -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에서 캠페인이 이루어 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상했던 루트대로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라 처음에 Poverty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가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집 할 때에는 다들 정성스럽게 의견을 적어주고, 우리의 캠페인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 많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처음의 의도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과 그들이 생각하는 빈곤을 언어적 문제와 사람들이 캠페인 자체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알리는 것과 공유하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래도 사람들에게 빈곤 캠페인에 대한 정의와 빈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고, 또한 youth forum 멤버들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논의 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적어도 이곳의 youth forum멤버들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빈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와 많은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의 캠페인을 흥미로워하고 즐겼다는 것 만으로도 캠페인이 굉장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자료가 college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 영어로 작성해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과 시장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다. 우리가 제공한 자료 중에서 세계지도와 그림을 그린 부분에 흥미를 많이 가졌다. 그래서 다음 캠페인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NFPS - 학교 수업

1. 대상: Dahapara School Students.
2. 시기: october
3. 교육활동
 - 수학: 방글라 숫자와 덧셈, 뺄셈을 가르침
 -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알파벳에 해당되는 단어와 영어 노래 가르침
 - 미술: 그림 그리기 및 이름표 만들기



수학



체육



영어



미술

- 주요 활동 소개

- Dahapara NFPS - 운동회

1. 시기: 10월 21일
2. 대상: Dahapara School Students.
3. 활동내용: 달리기, 멀리뛰기, 장애물달리기, 줄다리를 통해 아이들의 기록을 측정하고 아이들에게 상품으로 공책을 증정함.



달리기



멀리뛰기



장애물달리기



줄다리기

주요 활동 나눔 - Dahapara NFPS-

첫째 달 보다 이번 달에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더 높아져서, 지금도 제한적이지만 첫 달 보다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과학 분야 가르치기가 어려워 좀 더 방글라 언어를 공부한 후 수업을 준비한다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덧셈, 뺄셈 간단한 것 말고 게임이나 다양한 놀이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본적인 수업 아이템인 노트와 연필이 제공됐으므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수준 있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Sports Competition 에서 달리기, 줄다리기 등을 시도했는데, 처음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임해줘서 감동이었다. Sports Competition의 개념이 운동회인가 아니면 단순히 한국의 체력장인가에 대한 의견차이가 나뉘었지만, 운동회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유치원 체력장의 개념으로 잡고 준비를 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제대로 운동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

dahapara활동이 우리의 주요활동인데 이곳의 휴일과 여러 가지 활동과 겹쳐 팀을 오래 두고 자주 가지 못해, 친해졌다 싶을 때 오랫동안 가지 못해 수업의 흐름이 자주 끊겨 아쉽다.

주요 활동 소개

- Basketball Challenge -

1. 시기: 10월 13일
2. 내용
 - 주최: 비리시리 YMCA
 - 참가대상: 라온아띠 팀과 청년 회원
 - 활동장소: missionary girls high school, durgapur college, children sponsorship program
 - 활동내용: 농구골대를 설치하고 학생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구공을 한번 씩 던지게 함.
3. 활동의미
 - ✓ 농구공을 던지는 활동을 통해 YMCA 에서 창시한 농구를 기념하고 같은 날 많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던지는 활동을 통해 기네스 북에 도전



주요 활동 나눔

- Basketball Challenge -

YMCA가 농구를 창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던지는 행사가 Basketball Challenge이다.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다는 이 행사는 더 많은 숫자를 도전하기 위해 매년 10월 13일에 진행된다. 농구는 방글라데시에서 흔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행사를 하러 간 Durgapur College, Children Sponsorship Program 이 곳에서 학생들과 아이들이 농구공을 한 번 던져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리시리 YMCA 남는 부지에 농구골대를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농구의 룰을 잘 알고 있는 단원이 농구 교실을 열어 비리시리의 청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라온아띠는 안전상의 문제로 비리시리 YMCA 캠퍼스 반경과 다하파라가 활동 범위였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College와 High School도 방문하면서 우리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 같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학생들과 Durgapur 사람들까지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Durgapur College에서 교장 선생님과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소개하고 한국의 가난과 방글라데시의 가난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행사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 것은 비리시리 마을 주민으로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 취지와는 달리 벵골어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해서 아주 간단한 일밖에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요 활동 소개

- Korea Language Class -

- 활동시기
- 주체: 라온아띠
- 대상자: YMCA 청년 회원
- 활동내용
 -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것임
 - 지난 시간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복습
 - 한국 인사법과 문법을 배움
- 차기 수업 계획
 - 문법에 대해 마무리 지을 예정
 - 계속해서 한국어 일상 용어 수업을 할 예정



주요 활동 나눔

- Korean Language Class -

한국어 수업 역시 다하파라 수업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계속 끊기고 아이들의 출석률이 애매해서 그룹을 나눠 수업을 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한 시간은 전체적으로 하고, 한 시간은 그룹별로 나눠 수업을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시도했다.

한국어 수업의 일주일에 두 번 같은 요일로 확정되고 수업의 학생들의 핸드폰 번호를 모아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했다.

우리의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커리큘럼을 주고 계획을 짜야 하는데 각각 단원들이 가르칠 차례가 될 때마다 준비를 알차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야겠다. 또, 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다른 단원들이 교실에 남아있으면 학생들이 다른 단원들에게 질문하느라 집중을 못해 다른 단원들은 한 단원이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는 빠져 있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단원들로 쏠리는 관심을 한 선생님이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집중적인 수업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어 수업은 매주 두 번씩, 두 시간, 일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출석률이 일정하지 않아 오는 학생들은 꾸준히 오고, 가끔 오는 학생들은 빠지는 날이 많아 각각 학생들의 진도가 다들 다르다. 잘하는 그룹의 학생들의 경우,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제 처음 시작한 학생들도 있어 한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단계다.

주요 활동 소개

- 텃밭 가꾸기 -

활동 시기

•10월 초 :
이랑 고랑 만들기

•10월 중순 :
씨앗 뿌리기

•10월 초~말:
울타리 설치

차후 계획

- 울타리 관리 및 출입구 만들기
- 지속적인 물주기
- 잡초 제거
- 채소 숙아 내기



주요 활동 나눔 - 텃밭 가꾸기

10월이 되서는 이랑 고랑과 울타리 설치가 이 활동의 주를 이뤘다. 이랑 고랑을 처음 만들 때 가져다주신 농기구는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최신식의 농기구가 아니라 날이 무더진 방글라데시의 농기구였다. 처음에 봤을 때 이 것들로 이랑 고랑을 어떻게 만들지 걱정이 됐는데, 경험이 있는 몇몇 단원들의 열의 있는 삽질로 이랑 고랑을 완성 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의 밭은 이랑 고랑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이랑 고랑을 완성하고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한국의 밭을 본 것 같아 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울타리 설치의 경우, 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편한 플라스틱 네트로 갈 것인가, 친환경적인 대나무로 울타리를 설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었다. 대나무로 만드는 울타리는 친환경적이고 방글라데시의 전통 방법이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망설여졌다. 하지만 수연 단원의 뜻심 있는 설득 끝에 나머지 단원들이 수긍했고, 그 결과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대나무 울타리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이 곳의 전문가들처럼 세심하고 완성도 있는 울타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었기에 한없이 예뻐보이는 울타리다.

아직 마무리는 안됐지만, 몇몇 종자가 새싹이 보여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다 잊혀지고 보람찼다. 우리나라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어 날씨가 안 맞아서 실패할 것 같았는데 심은 지 몇 일이 채 안 됐는데 싹이 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일중에 실제로 이뤄가는 것이 있구나 싶어 뿌듯한 시간이었다.



4. 개인별 월간소감

개인별 월간 소감 -구정선-

벌써 두 번째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게 실감나질 않는다. 이곳에 온지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니, 처음엔 적응을 못 한 탓인지 잘 가지 않던 시간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헤어 질때의 아쉬움 또한 점점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10월 중순 지나서부터 우리 방글리아팀은 특별히 홈스테이를 하며, 호스트와 생활을 시작했다.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어서 나 또한 이제는 그들에게 가족 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10월 달엔 우리의 중요한 프로젝트인 end poverty campaign이 있었다. 이 곳 환경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원하는 것을 손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팀원 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멋을 이용한 캠페인을 했고, 그 캠페인준비과정을 통해 팀원들 하나하나의 재능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다. 어느덧 몇 일만 있으면 이 곳 생활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더욱더 남에게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도록 이 번 달을 노력해봐야겠다.

개인별 월간 소감 -김나드-

첫 월간보고를 쓰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월간보고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월간보고를 하라니 막막하
기만 하다.

이번 달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었다. YMCA Staff도, Raonatti도, Bangladesh 사람들도 전부 각자의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Birisiri YMCA는 두개의 큰 행사가 있었다. World Basketball Challenge와 AGM(Annual General Meeting)이다. 우리 두 행사에 모두
volunteers란 이름으로 함께했다. 함께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게 재미있었다. 하지만 함께 행사를 즐겼다는 그 즐거움 이상으로 무언
가를 더 얘기하길 바란다면... 없다! 행사 내내 Birisiri Youth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즐거웠다.

우리에게도 큰 행사가 있었다. End Poverty Campaign. 정말 열심히 준비한 캠페인이었다. 처음 계획했던 것을 갈아엎기도 하고, 새로
운 주제를 잡는데 대해서(특히 여성인권) 팀 내에서 말이 많았다. Poverty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듣고 싶어서 현지인들과도 얘기
를 나누었다. 정말 준비기간이 길었던 것 같다. 뭐가 그리도 완벽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결과물은 다 똑같았을
텐데... 캠페인 참가자들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보다 'Yellow Skin'을 가진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 우리에게 쏟아진 호기심들이
Poverty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쳤던 것 같다. 캠페인 진행 당일에는 '아... 망
했다...'라는 기분이 물 밑듯 들었다. 우리 캠페인엔 너무 '글'들이 많았다. 그것도 '영어'로 쓰여진 글들이... 그래서 Bazar에서 캠페인
을 진행했을 땐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벵골어로 쓰던가, 글이 아닌 한눈에 파악되는 그림
이나 퍼포먼스 등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캠페인의 준비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날 당일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팀원끼리 얘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해놓고 캠페인 당일엔 허둥지둥 병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캠페인 진행 장소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고, 여러 가지
부족한 물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다.

하지만 팀원들과 활동 나눔을 하면서 나의 패배감 같은 이상한 감정들은 사라졌다. 평소엔 생각해보지 않았을 'poverty'라는 단어를
밖으로 끄집어 낸 것만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루종일 캠페인을 진행한 YMCA Youth와의 활동으로도, 슈퍼맨 망토를 단 우리에게 End
Poverty Campaign이 뭐냐고 물어온 어떤 아저씨만으로도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Bangladesh도 각종 행사가 많았다. 힌두페스티벌, 이슬람페스티벌.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일주일 동안 공휴일을 준 굉장.히. 좋은
달이었다. 하지만 홈스테이를 시작하자마자 종교적인 행사가 열려서 힌두 & 이슬람 페스티벌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나의 host
family는 기독교 집안이었다.)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무실림 행사를 즐기지 못했다는 게 아쉽지만 새로운 가족의 종교를 존중하므로
Pass!! 솔직히 매일 저녁 친척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족에게 무실림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다고 차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러모로 각종 행사가 많아 북적북적 정신없이 지나간 10월이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곳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
던 시간이었고, 그들의 생활, 생각, 활동들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개인별 월간 소감 -한지연-

11월 중순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10월 한 달은 정말 정신 없이 지나갔다. 먼저, 우리 팀의 가장 큰 변화라면 다 같이 모여 살던 YMCA 게스트 하우스에서 따로 각각 떨어져 호스트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을 붙어 있던 팀원들과 떨어져 혼자서 낯선 공간에서 지내게 됐다는 사실은 조금은 떨리기도, 조금은 겁나기도 했다. 내가 들어가게 된 집은 비리시리 YMC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레이몬드 아랭 다다(아저씨)였다. 9월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같이 지냈던 얼굴이기에 보다 편한 마음으로 홈스테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레이몬드 씨 댁의 가족은 12살, 11살인 사이키, 쇼일리 자매와 친절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주이 디디(아주머니), 레이몬드 씨의 먼 조카분인 니파 다다씨다.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서 생활 패턴을 함께하고, 삼시 세끼를 같이 먹으며 나 역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End Poverty Campaign은 우리 다섯 멤버가 10월 17일 당일까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활동이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다카와 비리시리 YMCA Youth Forum Member들과 대화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빈곤 현황과 우리의 주제를 정했다. 캠페인 당일, 비리시리 Youth Forum Member들의 고마운 도움 덕분에 아침부터 Durgapur에 있는 Mohila College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사전조사 부족이었다. 당연히 우리는 College를 우리나라의 전문대와 같은 학교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College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같은 체제였다. 그 동안 이루어졌던 Youth Forum Member들과의 토론을 무색하게 만든 실수였다. 하지만 Mohila College에서 학생들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물론 우리의 캠페인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았지만, '빈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우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해줬다. 그 뒤이어 Bazar에서 진행한 캠페인 역시 사람은 적었지만 캠페인 방식에 흥미를 느끼고 '빈곤 퇴치'에 대한 개념을 곱씹으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캠페인의 목표는 '빈곤을 알리고 빈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자'라는 것이었다. 물론 겨냥했던 목표가 완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비리시리와 두가풀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빈곤'과 '빈곤 퇴치'에 대한 개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머릿속으로 곱씹게 만들었다. 캠페인 전날까지 우리 자신이 광고판이 돼, 등에 슈퍼맨처럼 매달고 다녔던 'End Poverty Campaign' 현수막, 사탕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붙여놓은 End Poverty 문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받았던 End Poverty 라고 외치는 영상. 방글라데시에서의 첫 End Poverty Campaign, 잔잔한 수면 위에 작은 '빈곤'이라는 개념을 던져 넣었다고 생각한다. 내년엔 이 곳에서 다시 End Poverty Campaign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 작은 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잔잔한 물동그라미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Dahapara와 한국어 교실은 10월 초에 다녀온 다카 비자여행, 홈스테이로 옮기고 나서 바로 시작된 Durgapurza Festival과 Ed Day 휴일, 우리의 End Poverty Campaign과 비리시리 YMCA가 주최한 Basketball World Challenge 캠페인으로 인해 흐름이 계속 끊겼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 혹여나 심적거리가 멀어질까 걱정을 했지만 휴일이 끝나고 Dahapara에 가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연신 'Ed Mubarok(이드 데이 인사)'를 외쳐댔다. 12월 초에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가는 시험이 있어 그에 맞춰 우리의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비리시리에서의 생활 두 달째, 첫 달과는 다른 새로운 이 곳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다.

개인별 월간 소감 -이창현-

이번 10월은 나에게서는 지난 한 달간의 적응을 마치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었다. 게다가 이번 달은 우리 라온아띠와 YMCA가 모두 함께 하는 빈곤 퇴치 캠페인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지난 한달 간 적응을 완전히 마쳐서 이번 달은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지낼 수 있었다.

10월 우리의 계획 중 하나인 농사를 완료한 것이 제일 큰 기쁨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비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한국 채소를 심은 것이 너무 좋았다. 특히 이곳의 기후가 겨울이 되가는 상황에서 다행히 씨앗이 발아를 한 것이 너무 기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빈곤 퇴치 운동이다. 이 운동을 준비하면서 한 달을 아마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여기 청년 애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들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가난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10월 13일 농구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이 날 하루 전 세계에서 동시에 농구공을 던지는 행사로 참 흥미로운 행사다. 모두가 한 번씩 던져서 세계기록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곳에서 농구 골대를 옮겨 다니며 행사를 하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머지 다하바라 스쿨과 여러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 지난 달의 연장선상에 있던 것들이라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스트 하우스 생활에 있어 적응의 한 시험이 나에게 주워진 달이었다.

개인별 월간 소감 -홍수연-

방글라데시에 온지도 2달 비리시리에 온지는 두 달이 조금 모자란 시간이 지났다. 초반에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다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번 달과 첫 달을 비교해서 많이 변한 건 홈스테이를 시작한 것이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도 안 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데 같이 살다 보면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지금은 홈스테이를 시작한지 보름이 지났다.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한다. 오히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냈을 때보다 이곳이 더 좋다. 매끼 밥을 챙겨주시면서 항상 같이 있어주시고, 내 일정을 함께 체크해 주시고, 나는 이 집의 구성원이고 가족이라고 감사하다는 말마저 사양하시는 우리 비바아랭 마시(이모), 매일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드라마도 보시고,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시는 이웃에 사시는 친척 분들, 내가 이곳에서 적응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홈스테이를 시작하면 이곳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밥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잠은 언제 자며 일상을 어떻게 보내며,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음식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매일 host family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벵갈어와 garo언어도 더 늘어나는 것 같다.

또한 10월달은 8개국이 함께하는 end poverty campaign이 17일에 있었다. 한달 가량 전부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자료도 조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느라 팀원들 모두 너무 너무 수고했고, 힘든 티 안내고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최빈곤이라 불리는 방글라데시에서의 빈곤퇴치캠페인,, 처음에는 이곳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을 퇴치합시다 빈곤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올바른 일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의 주민들, 청년들과 현지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이곳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내가 배우면서 크게 머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개인별 월간 소감 -홍수연-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생각만 했지?'라는 생각. 오히려 나보다도 이 곳 사람들이 빈곤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빈곤이 가장 심각한지, 이곳의 빈곤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 됐는지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곳의 청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또한 빈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뜻 깊고,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dahapara아이들.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안보면 너무 너무 보고 싶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아이들도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면 다가 갈수록 아이들도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dahapara아이들은 상상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korean class는 다소 안정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출석률도 너무 변동이 심하고, 일정을 통보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지금 완전한 날짜와 시간을 고정시키고, 만약 일정에 변경이 생긴다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만들었다. 또한 다소 산만해진다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1시간 한 사람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을 그룹별로 나눠 가르치는 방식이 지난달에 진행하던 방식보다 더 나아진 것 같다. 또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태권도 반을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마지막으로 한글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우리와 함께 하는 birisiri ymca youth들 너무 너무 좋다. 굿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너무 좋다며 남은 시간을 항상 같이 하고 싶다는 아이들. 비리시리 생활 63일째 지금 현재 너무 너무 행복하다.